

03 고 교 · 대 학 비 용

기숙사·통학·자취

학비 밖의 돈

- ◆ 이 자료는 **무료**입니다. 마음껏 나눠 주십시오.
- ◆ 법령과 학교가 발표한 요강만 정리했습니다. **예측하지 않습니다.**

CONTENTS

01 숫자부터	2
02 무엇이 다른가	3
03 어떻게 확인하나	4
04 그래서 무엇을	5
05 자주 묻는 것	6

무엇이 들어 있나

- ◆ **기숙사 수용률 중앙값 18.7%** — 다섯에 하나도 못 들어갑니다
- ◆ **신입생은 우선 배정, 2학년부터는 다릅니다** — 거리순이면 계속 떨어집니다
- ◆ **기숙사·자취·통학 셋을 나란히** — 돈과 시간이 맞바뀌집니다
- ◆ **통학 두 시간은 4년에 1,000시간** · 안 됐을 때의 계획이 진짜 계획

01 · 숫자부터

다섯에 하나도 못 들어갑니다

「집에서 멀면 기숙사 넣으면 되죠.」

계산에서 가장 자주 빠지는 자리입니다. 기숙사는 신청한다고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대학알리미 공시로 보면 자리가 생각보다 훨씬 적습니다.

50개 대학의 기숙사 수용률입니다. 재학생 가운데 기숙사에 들어갈 수 있는 비율입니다.

무엇	수용률
중앙값	18.7%
가장 낮은 곳	8.9%
가장 높은 곳	57%

중앙값이 18.7%입니다. 다섯에 하나도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곳은 8.9% — 열에 하나도 안 됩니다.

그런데 신입생은 우선 배정하는 대학이 많습니다. 그래서 1학년은 되고 2학년부터 안 되는 일이 흔합니다. 「1학년에 들어갔으니 4년 괜찮겠지」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기숙사를 전제로 대학을 고르시면 위험합니다. 「못 들어가면 어떻게 할 것인가」까지 계산에 넣으셔야 합니다.

출처: 대학알리미 공시(50개 대학, 2025년 공시분)를 저희가 집계. 50개 대학 값이라 전국 평균이 아니며 대학마다 크게 다릅니다.

02 · 무엇이 다른가

세 가지 살 곳

집에서 멀면 셋 가운데 하나입니다. 돈과 시간이 서로 맞바뀌집니다.

	기숙사	자취	통학
돈	가장 싸입니다	가장 비쌉니다	교통비만
시간	거의 안 듭니다	안 듭니다	하루 두세 시간
확실한가	안 될 수 있습니다	됩니다	됩니다
보증금	적거나 없음	목돈이 듭니다	—

셋째 줄이 이 자료의 핵심입니다. 기숙사는 가장 싸지만 가장 불확실합니다. 계획을 기숙사 하나에 걸면 안 되는 까닭입니다.

통학 시간은 4년치로 세어 보십시오

편도 한 시간이면 하루 두 시간, 한 학기(15주)에 약 150시간입니다. 4년이면 1,000시간이 넘습니다.

이걸 손해로만 볼 일은 아닙니다. 그 시간에 읽거나 자거나 할 수 있고, 집에서 지내는 값도 있습니다. 다만 계산에 넣어야 견줄 수 있습니다.

자취는 목돈이 먼저 나갑니다

보증금이 입학 전에 한 번에 나갑니다. 월세는 나눠 내지만 보증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합격하고 나서 알게 되면 급해집니다.

그리고 대학이 방값은 대학마다 크게 다릅니다. 같은 등록금이어도 사는 데 드는 돈이 배로 차이 날 수 있습니다.

통학 시간 환산은 저희 계산입니다. 방값과 보증금은 지역·시기에 따라 크게 다르므로 숫자를 실지 않았습니다.

03 · 어떻게 확인하나

입학 전에 물어볼 것

#	물을 말	왜
1	「신입생은 우선 배정되니까?」	1학년이 되는 곳이 많습니다
2	「2학년부터는 어떻게 뽑습니까?」	성적·거리·추천 — 대학마다 다릅니다
3	「한 학기 기숙사비가 얼마입니까?」	식비 포함 여부가 갈립니다
4	「방학에도 있을 수 있습니까?」	비우라는 곳이 있습니다

2번이 가장 중요합니다. 거리순으로 뽑는 대학이 많은데, 그러면 가까이 사는 학생은 계속 떨어집니다. 「집이 애매하게 먼」 경우가 가장 곤란합니다 — 통학은 힘든데 기숙사는 안 되는 자리입니다.

성적순으로 뽑는 대학도 있습니다. 그러면 학점이 주거를 정합니다.

4번도 실제로 걸립니다

방학에 기숙사를 비워야 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집이 멀면 방학마다 집을 옮겨야 합니다. 계절학기를 듣거나 인턴을 하면 따로 살 곳을 구해야 합니다.

공시로도 대략 보입니다

대학알리미에 기숙사 수용률과 기숙사비가 공시됩니다. 지원 전에 후보 대학의 수용률을 건줘 보시면 「이 대학은 사는 문제가 크겠다」가 미리 보입니다.

출처: 대학알리미 공시 항목 및 각 대학 생활관 안내. 선발 방식과 비용은 대학마다 다릅니다.

04 · 그래서 무엇을

계산하는 차례와 점검표

대학을 고르실 때 등록금 옆에 사는 돈을 함께 적으십시오.

항목	대학 1	대학 2
등록금 (1년)	☐	☐
장학금 뺀 실부담	☐	☐
기숙사 수용률	☐ %	☐ %
기숙사비 또는 방값 (1년)	☐	☐
통학 시간 (편도)	☐ 분	☐ 분
4년 합계	☐	☐

사는 문제를 확인하실 여덟 가지

☐ 그 대학의 기숙사 수용률 을 보았는가

☐ 신입생 우선 배정 인지 물어보았는가

☐ 2학년부터 어떻게 뽑는지 아는가

☐ 거리순이라면 우리 집이 유리한가 불리한가

☐ 한 학기 기숙사비 가 얼마인가

☐ 방학 에 비워야 하는가

☐ 못 들어가면 어떻게 할 것인지 정했는가

☐ 자취라면 보증금 을 마련할 수 있는가

일곱째가 이 자료의 전부입니다. 수용률 18.7%는 「대부분 못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안 됐을 때의 계획이 진짜 계획입니다.

입시CUBE가 드리는 말씀

저희에게 손해가 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는 문제로 대학을 좁히시는 것은 부끄러운 판단이 아닙니다. 4년 동안 매달 나가는 돈이고, 등록금보다 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통학 두 시간은 4년 내내입니다. 「집에서 다닐 수 있는 곳」을 한 칸 더 보시는 것이 학교 이름 한 칸보다 4년을 낮게 만들 수 있습니다.

05 · 자주 묻는 것

사는 문제에 대해 자주 하시는 질문

Q. 기숙사에 못 들어가면 휴학해야 하나요?

그럴 일은 아닙니다. 다만 미리 알아 두시면 급하지 않습니다.

기숙사 발표는 보통 학기 시작 몇 주 전에 납니다. 그때 안 되면 급하게 방을 구해야 하는데, 그 시기에는 방이 없고 값도 비쌉니다.

그래서 기숙사 신청과 함께 방도 알아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되면 안 구하면 그만이고, 안 되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학년부턴 안 될 가능성을 1학년 때 미리 아셔야 합니다. 1학년 2학기쯤에 다음 해 주거를 알아보시면 여유가 있습니다.

Q. 통학 두 시간은 견딜 만한가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저희가 정해 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세어 보실 것은 있습니다.

왕복 두 시간이면 4년에 1,000시간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통째로 버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 앉아서 갈 수 있으면 읽거나 자거나 할 수 있습니다. 서서 가는 두 시간과 앉아서 가는 두 시간은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 실제로 한번 가 보십시오. 등교 시간대에 가 보셔야 합니다 — 한가한 시간에 가 보면 다릅니다.

그리고 1교시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십시오. 시간표에 따라 매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한 줄로 남기면

기숙사 수용률은 중앙값 18.7%입니다. 기숙사를 전제로 계산하지 마시고, 안 됐을 때의 계획을 세워 두십시오.

이 자료는 2026년 8월 기준 대학알리미 공시를 집계한 것입니다. 50개 대학 값이라 전국 평균이 아니며 대학마다 크게 다릅니다. 선발 방식·비용·방학 운영은 대학마다 다르니 해당 대학에 확인하십시오.